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17)
주제: 외부의 관점-러시아의 시점으로 동아시아를 보면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제 17 회 강연에서는 중국문화대학교 일본어문학과 츠카모토 전야(塚本善也) 부교수를 초청하여 「외부의 관점-러시아의 시점으로 동아시아를 보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츠카모토 교수는 먼저 「외부의 관점」이라는 것은 설명하였다. 즉, 자아 인지를 상대화하는 것이다. 사물이 판단하여 세상을 이해하려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 인지에 대한 의심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중심주의에 벗어나고 싶으면 「외부의 관점」이 필요하다.

츠카모토 전야 교수는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의 저서 『제국주의하의 대만』(1929)을 예로 설명하였다. 본 강좌 초청하였던 하의인(何義麟) 교수의 책에도 『‘제국주의하의 대만』은 식민지 대만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대만의 근대화 과정도 설명하였다. 이 책은 1934 년에 소련에서 번역하고 간행되었는데, 그의 시대적 배경은 스탈린(史達林)의 민족해방운동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었다. 전에 말했듯이 같은 책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즉, 자기의 생각과 관점은 외부의 관점이다. 외부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강좌에서는 동아시아, 특히 대만과 일본을 러시아의 시점인 외부의 관점으로 설명할 것이다.

츠카모토 교수는 먼저 일본 내각부가 2020 년에 실시했던 「외교 관련 여론조사」를 소개하였다. 이 조사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일본인은 85.7%를 차지하였다. 러일관계에 대해 양호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가 73.9%였다. 이에 비해, 2019 년의 「러시아의 대일 여론조사」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양호하다고 답변한 러시아인은 71%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신뢰감이 있다고 답변하는 자가 45%로 나왔다. 이처럼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물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자주 논의해야 한다.

러시아는 지정학의 필요함에 동방(東方)연구를 하였다. 그의 기반은 표도로르 1 세(彼得大帝)가 세웠다. 과거에 러일 양국 서로에 대한 정보 출처는 표류민과 포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표류민인 덴베(傳兵衛)는 표도로르 1 세가 세운 세계 최초의 일본어학교 교사로 고용된 바 있다. 또 사쓰마번(薩摩藩)(현 가고시마現鹿兒島) 출신의 표류민 곤자(gonnza)가 세계 최초의 러일사전을 지었다. 표류민 중에 가장 유명한 다이코쿠야 코타오(大黒屋幸太夫)가 러시아의 정보를 일본으로 가져오고 후에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가 정리하여 북사문략(北槎聞略)을 지었다. 한편 일본의 정보를 러시아에 전달한 사람은 해군 장교, 골로브닌 (Golovnin) 이었다. 그는

1811년부터 13년간 일본에서 감금되었다가 귀국한 뒤 『일본유수기』(日本幽囚記)를 지었다. 책 내용에 일본과 일본인을 높이 칭찬하였다. 이 책은 유럽인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던 야만적이고 비문명국이라는 일본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러일 양국간에 가장 큰 역사 사건은 러일전쟁이었다. 이 사건의 시대 배경은 19세기 말부터 유럽과 미국에 널리 퍼진 「황화론(黃禍論)」이었다. 아시아에 대한 두려움의 반작용이 일본주의(Japonisme)가 유럽과 미국을 풍미한 시대였다. 러시아에서도 미술 위주로 일본주의를 넓히고 있었다. 본 강좌에서 츠카모토 전야 교수는 러시아 화가들이 일본 우키요에(浮世繪)의 영향을 받아 창작한 작품을 예로 설명하였다. 또 러시아 예술가가 일본의 전통 예술을 배우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일본의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위에 사례는 모두 문화가 상호작용한 예이다.

또 일본을 연구한 러시아 학자도 많다고 하였다. 엘리제프(愛理賽夫 Eliseyev)를 예로 소개하였다. 엘리제프는 메이지 시대(明治時代)에 도쿄 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유학하여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 등 훌륭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열심히 일본 연구를 하였다. 그 후에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燕京研究所) 첫 번째 소장으로서 부임해 미국의 일본 연구자를 배출한 점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연구소에 나온 사람 중에 케네디 대통령 시대의 주일대사 라이샤워(E. Reischauer), 저작을 많이 남겨진 도널드 킨(Donald Keene),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영역자 사이든스티커(E. Seidensticker) 등이 있다. 현재 대만을 연구하는 러시아 학자로는 골로바체프(劉宇衛 Golovachev)와 몰로자코프(莫洛賈科夫 Molodyakov)가 있다. 20세기에 두 학자가 대만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것은 러시아의 대만 연구 심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츠카모토 전야 교수는 앞에 말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대만과 러시아는 같은 환태평양국가로 속하여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알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또한, 자신의 연구를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관점」을 의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진방여(陳芳仔)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